

西洋 紋章의 象徴性에 關한 研究

崔 英 玉

安東大學 衣類學科

A Study on the Symbolical Character of Western Heraldry

Choi Young-Ok

The Clothing and Textiles Department of Andong National University

(1990. 4. 19. 접수)

Abstract

The western heraldry influenced by the style of periodic art, the lion and the eagle charges were expressed simply and laconically in Romanesque period, laconically but forcibly in Gothic period, and elegantly and elaborately in the period of the Renaissance.

The symbolical character of each charge expressed in the heraldry in the process of the changes of the time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1) The ferocious beast like the eagle or the lion in the heraldry is symbolic of a majestic appearance of sovereign's.
- 2) The legendary or mythical monster in the heraldry is the symbol of holding sacred the heraldry owner endowed superhuman ability from him, or the symbol of coercion or menace to the other party on the appearance of being sized with fear.
- 3) The domestic animals or the poultry in the heraldry are chiefly symbolic of intrepidity, bravery, sacrifice, or faithfulness, which can be supposed a subject's loyalty to his sovereign.
- 4) The lamb or the cross in the heraldry is the charge concerned with Christ who brought a fundamantal thought in the middles ages. So they can be said the symbol of Christianity.

I. 緒 論

紋章이라 함은 紋樣과 記號가 圖案化되어 個人표시, 個人紋도 되고 家紋, 동족이 합쳐질 때도 사용되며, 또 특정집단 구성원의 계보, 권위를 상징하는 장식적인 마크(mark)로서 서양에서 주로 발달된 것이다.

西洋紋章의 기원은 종교나 미신과 결부되어 이미 고대 국가에서부터 국가나 왕의 상징(symbol)으로 나타났

다. 예를들면 앗시리아에서는 황소의 형상을 붙인 圓盤이 쓰였고 고대 그리스에서 아테네는 올빼미, 코린트는 페가수스(Pegasus; 天馬), 크레타는 미노타우로스(Minotauros; 人身牛頭의 怪物), 펠로폰네소스는 거북 등이 상징동물로 쓰였다. 로마에서도 마리우스(G. Marius; B.C. 157~86)가 집정관으로 있을 때 독수리를 상징으로 삼을 것을 명하였다 한다¹⁾. 그 후 이 독수리 문장은 軍旗에 다는 마크가 되기도 했다. 한편 고대 그리스의 戰士들은 등근 방패에 사자·소·개·멧돼지·

물고기·새 등을 나타내는 마크를 달았다 한다²⁾. 켈트 민족은 말을 상징으로 삼았고 바이킹은 붉은 바탕에 검은 새를 旗로 사용했다.

그러나 오늘날 볼 수 있는 西洋紋章은 12세기 경으로 전쟁에 나가는 戰士가 방패나 槍旗에 표시로 그린 상징과 문양이父의 무기를 계승받는 것에 의해 자손에게 세습되고 家名과 領地를 나타내게 된 것으로부터 성립된 것이다. 또 일종의 경기인 馬上槍試合(tournament)을 할 때에도 문장은 중요한 것이 되었다.

그 후 문장의 유행은 대단히 확대되어 12세기 중기 이후에는 귀족의상에서조차도 문장을 사용하게 되어 신분 상징과 장식의 두가지 목적을 동시에 겸하게 되었다. 문장의 이와같은 유행은 의복을 상하좌우로 나누어 색채를 달리하거나 문장을 부분적인 장식으로 이용하여 14세기에는 문장복을 낳게 하였다³⁾.

그러므로 문장과 문장복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문장에 나타난 圖形과 그 상징성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西洋紋章에 나타난 圖形의 역사적 변천을 살펴보고 각기의 圖形이 나타내는 상징성을 문헌을 중심으로 밝히고자 한다.

II. 紋章의 種類와 構成

西洋紋章의 종류와 구성에 관해서는 「유럽 紋章에 관한 研究」에서 이미 발표된 바 있으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하게 요약하기로 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拙稿⁴⁾를 참조하기 바란다.

문장은 전장에서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기 위해 발생되었으므로 가장 눈에 잘 띄는 무기인 방패 위에 나타내었다. 西洋紋章이 방패모양을 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며 문장이 arms라 불리우는 것도 이 때문이다⁵⁾. arms 이 외에 armory, armorial bearing, coat of arms, heraldry, wappen 이라 일컬어 지기도 하며, crest, blazon, supporter 등도 문장과 관련된 용어이다⁶⁾. 'coat of arms'란 騎士가 갑옷 위에 입은 코트에 수놓은 문장을 뜻하고 'heraldry'는 herald(紋章官)와 관계되는 말이다. 즉 herald는 중세 유럽에서 騎士들이 馬上試合을 할 때 이것을 알리고, 왕이나 영주와 군대사이의 문서전달, 儀式의 先導 등을 맡은 직책이다. 또한 문장관은 방패나 코트, pennon(창에 다는 삼각형 旗)에 달린 문장을 식별하는 직무도 담당하였으므로 여기에서

문장을 heraldry라 부르게 되었다⁷⁾.

문장의 종류에는 여러가지로 첫째, 왕·주권자·국가의 문장으로 영국의 사자, 프랑스의 백합, 러시아의 독수리 문장, 둘째, 공적에 대해 영주로부터 허락된 문장, 셋째, 성직자·도시·대학·길드와 그밖의 단체의 문장, 넷째, 현·장원의 지배자 문장, 다섯째, 특별한 家門에 속하는 世襲紋章, 여섯째, 결혼에 의해서 이루어진 문장, 일곱째, 遺贈·繼後·贈與에 의해 계승된 신분을 나타내는 문장 등이 있다⁸⁾.

문장의 구성은 전통적인 법칙이나 관습에 따라 정해졌다. 문장용어로 이스커천(escutcheon)이라 하는 방패형을 기본으로 여기에 갖가지 圖形과 무늬를 그리고 그 주위에 부속물(accessory)을 첨가시키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방패만의 것을 coat of arms, accessory가 달린 것을 achievement 혹은 통속적으로 전자를 small arms(小紋章), 후자를 great arms(大紋章)라 한다⁹⁾.

大紋章으로서 영국왕의 문장을 예로 들면 방패형(shield)을 넷으로 분할하여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를 상징하는 圖形(charge)을 넣고 방패형 위에 투구(helmet)와 왕관(crown), 다시 그 위에 투구장식(crest)을 놓는다. 방패형 좌우에는 보좌(supporter)라 불리는 사자와 일각수(一角獸), 투구 좌우에는 바람에 필릭이는 장식덮개(mantle)가 있으며, 방패형 밑에는 명구(motto)와 좌대(compartment)가 배치되어 있다¹⁰⁾. 문장은 이와같은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방패형 속의 도형은 처음 만들때는 하나이나 영국같은 연합왕국이나 결혼에 의해 家門의 문장을 合組하는 경우 방패형을 분할하여 몇개의 문장을 첨가시킨다.

III. 紋章圖形의 變遷

紋章圖形은 動物紋樣, 植物紋樣, 宇宙·自然 現象, 傳說上的 創造物, 人工圖 등으로 나눌 수 있다. 本考에서는 문장도 복식처럼 예술양식의 변천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변화되었으므로 앞으로 문장과 복식과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문장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역사도 오래된 사자와 독수리 문장을 중심으로 예술양식에 따라 그 변천과정을 고찰하기로 하겠다.

1. 藝術樣式에 따른 사자 紋章의 變遷

· 초기 로마네스크 시대의 문장학의 사자는 단순한 형으로 방패 중심에 똑바로 선 자세로 방패 가득히 그려져 있다. 사자의 묘사는 독수리 묘사와 마찬가지로 자연적인 형태와는 동떨어진 것이다. 이러한 초기 사자에 대한 문장학상의 규격화에서는 간결한 로마네스크양식의 영향이 보여진다. 그러나 예술양식의 변천과 더불어 사자의 자세도 변화되어 가게 된다.

· 12세기에서 13세기 : 초기 고딕의 사자는 간결한 로마네스크 양식의 영향으로 Fig. 1에서 볼 수 있듯이 몸을 똑바로 세우고 삼각방패에 맞도록 그려져 있다. 몸은 가늘고 길게 뻗어있으며 體毛는 적다. 머리와 주둥이는 길고 뾰족하며 주둥이는 닫혀져 있거나 약간 열려있다. 눈은 대단히 작게 묘사되어 있다. 왼쪽 뒷다리는 수직으로 뻗어 있고, 왼쪽 앞다리는 몸에 대해 수직에 가까운 형이며 오른쪽 뒷다리과 앞다리는 비스듬히 위로 향해있다. 발가락은 약간 벌리고 발톱은 가늘고 길며 조금 구부러져 있다. 등선에 따라 감겨진 꼬리의 끝은 몇 갈래로 갈라져 있다.

· 13세기에서 14세기 중기 : 중기고딕의 사자의 자세는 전시대와 거의 마찬가지이다. 뒷다리는 직각을 이루고 약간 땅딸막한 꺾리는 자연의 형태에 가까운 것으로 되어있다. Fig. 2에서와 같이 주둥이를 약간 벌리고 혀



Fig. 1. 초기 Gothic 사자
(須本由喜子; 西洋紋章大圖鑑, p. 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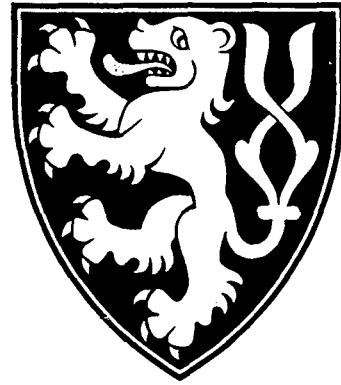


Fig. 2. 중기 Gothic 사자
(須本由喜子; 西洋紋章大圖鑑, p. 215)



Fig. 3. 말기 Gothic 사자
(須本由喜子; 西洋紋章大圖鑑, p. 215)

가 보이도록 되었으며 갈기가 그려지게 된다. 下腿部에도 드문드문 술이 보인다. 클로버잎 모양을 한 머느리 발톱의 살갓은 부풀어 있고 발가락은 벌려졌으며 발톱은 강하고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또 갈라진 꼬리 끝에는 등근부분을 갖고 있는 것이 많다.

· 14세기 중기에서 15세기 중기 : 이제까지 간결한 고딕양식에서 과장적인 르네상스양식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현상이 나타나 다소 장식적 요소를 갖추게 된다. 똑바로였던 몸의 축이 비스듬히 오른쪽으로 기울게 되어 Fig. 3에서 볼 수 있듯이 약간 굽고 있는 형으로 된다. 가슴은 앞으로 펴고 下半身은 가늘며 머리는 힘차게 그려져 있다. 주둥이는 열려있어 날카로운 이와 길게 늘어진 혀가 나타난다. 갈기가 12~13세기에는 작게 귀 뒤쪽에서만 보여졌는데 16세기 때는 더욱 더 많이 그려지게

된다. 뒷다리와 앞다리는 구부러지고 술이 달려 있다. 발가락은 직각으로 벌려져 있고 발가락의 끝과 발톱을 강조하고 있다. 꼬리는 위를 향하고 있으며 술이 서로 얽히고 있어 활기찬 울동감을 나타낸다.

· 15세기 중기에서 16세기 초 ; 초기 르네상스기의 사자의 묘사는 후기고딕양식의 특징과 비교하여 본질적인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선이 얼마간 풍부하게 되고 새로 생긴 방패형에 同化되도록 묘사된다. 따라서 서서히 엄격한 기본형이 장식 때문에 상실되어 간다.

· 16세기 ; 르네상스기의 사자 圖形은 Fig. 4에서처럼 자유분방하면서도 힘찬 그러나 우아하게 묘사되어 그 절정에 달하게 된다. 방패 오른쪽(독자가 보아서 왼쪽)으로 기울어진 가슴은 힘차고 같기도 많이 그려져 있다. 머리털과 발털이 각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다. 크게 열린 주둥이에서 길게 뻗은 혀 끝은 감겨져 있으며 크고 예리한 이도 날카롭게 묘사되어 있다. 머느리 발톱에 있는 발가락의 끝에는 깊은 파임이 있고 발가락을 극단으로 벌리고 있다. 또한 발톱도 강조되어 있다. 길고 위쪽으로 튕긴 꼬리는 소용돌이 치거나 서로 얽혀져 있어 장식적으로 방패의 왼쪽(독자가 보아서 오른쪽)을 메우고 있다. 이 자유롭고 호화롭게 펼쳐진 르네상스형에서 문장학의 사자 묘사는 원성하게 된다¹⁾.

2. 藝術樣式에 따른 독수리 紋章 變遷

문장학에 따라 장식적으로 樣式化된 독수리의 전형적인 형은 날개와 발을 벌린 엄밀하게 좌우대칭적으로 구성된 것이다. 형의 변화는 시대의 일반적인 양식의 변천



Fig. 4. Renaissance기 사자 (須本由喜子 ; 西洋紋章大圖鑑, p. 216)



Fig. 5. 초기 Gothic 독수리 (須本由喜子 ; 西洋紋章大圖鑑, p. 196)



Fig. 6. 중기 Gothic 독수리 (須本由喜子 ; 西洋紋章大圖鑑, p. 197)

과 더불어 변화되고 있다.

· 12~13세기 ; Fig. 5에서와 같이 위로 향한 둥근 머리, 날카롭게 구부러진 주둥이는 단혀져 있든가 혹은 약간 열려져 있는 정도이고 혀는 보이지 않는다. 날개의 깃털은 수직으로 내려져 있고 날개의 뼈(saxen)는 끝이 달팽이처럼 동그랗게 말려져 있다. 꼬리는 부풀은 깃털을 한데 모아 적은 묶음으로 만든 둥근 원모양으로 된 것이 많고 다리는 수직형으로 묘사되어 있다. 초기 고딕시대의 독수리는 로마네스크양식의 영향이 강하게 보여져 그 全體像은 엄밀하고 간결하다.

· 13세기 말부터 14세기 초기 ; 머리는 점차 수평으로 모양을 취하도록 되고 주둥이가 열리고 혀도 나타나게 된다. 또 목에는 목덜미 깃털이 나타났고 펼쳐진 날개는



Fig. 7. 말기 Gothic 독수리
(須本由喜子; 西洋紋章大圖鑑, p. 197)

가볍게 구부러져 있다. 날개의 뼈는 거의 반원형을 하고 있으며 다리는 몸의 축에 대해 예각을 하고 있다. 또 꼬리는 여러갈래로 나뉘어 양쪽으로 넓게 퍼져있다. Fig. 6과 같이 중기 고딕시대의 독수리 전체상은 보다 자유로우며 동시에 우아하다.

· 14세기 초기에서 15세기; 독수리 머리는 수평으로 된다. 주둥이는 구부린 것처럼 보이고 갈구리모양의 혀는 강조되고 길게 뻗어있다. 펼쳐진 날개의 깃털 사이에는 실모양의 깃털을 붙이고 있는 것도 있다. 날개뼈는 반원형이다. 발은 몸의 축에 대하여 거의 직각을 이루고 있으며, 뼈가 앙상하고 날카롭게 구부러져 있다. 꼬리는 파도치는 형태 또는 불꽃 모양으로 펼쳐져 장식적인 것으로 된다. Fig. 7과 같이 균형이 잡히고 표현이 풍부하며 생생한 이 독수리 형은 순수한 고딕양식의 요소에 근거를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 15세기 중기에서 16세기; 이전의 요소와는 본질적으로 遊離되어 독수리의 전체상은 더 장식적으로 된다. 양식적인 특징으로서 눈에 띄는 점은 구부러진 머리형에 굵은 목, 그리고 목에 오란스럽게 곤두선 깃털이다. 날개의 깃털은 방사상에 가까운 형으로 되어있다. 꼬리 깃털은 갈구리 형으로 감긴 형태가 많으며 험차게 벌려져 있다.

· 16세기; 장식적으로 양식화된 독수리 묘사의 전성기에 해당된다. 목덜미 깃털은 더욱 강조되어 파도모양 또는 불꽃모양을 하고 있다. 날개는 放射狀으로 되고 다리를 특히 강조하고 있다. 꼬리 깃털은 끝부분이 달팽이처럼 강하게 감겨있고 부자연스럽게 확대된 것과 돌출한 것이 많이 있다. 날개 깃털의 모든 사이사이에서는 실모



Fig. 8. Renaissance기 독수리
(須本由喜子; 西洋紋章大圖鑑, p. 198)

양의 깃털이 나타나게 된다.

이와같이 장식적이고 과장된 르네상스의 전형적인 요소를 사용해서 거칠게 움직이는 강인한 모습의 문장이 창안되어 본질적인 독수리의 문장은 완성된다¹²⁾(Fig. 8).

IV. 紋章에 나타난 圖形과 象徵性

문장에 나타난 圖形은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動物紋樣과 植物紋樣을 중심으로 고찰하겠으며 다른 圖形은 象徵性만 抽出, 比較해 보기로 하겠다.

1. 動物紋樣

문장학의 圖形에서 종류와 형태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動物紋樣이다. 거의 모든 동물에 대한 전체묘사 및 부분묘사가 행하여진다.

자세는 공격자세가 일반적인 자세이며 오른쪽으로 향한(dexter) 측면묘사가 보통이다¹³⁾(Fig. 4 참조). 포유동물은 뒷다리로 똑바로 일어서서 앞발을 앞으로 뻗친 자세를, 새의 경우는 절반 또는 완전히 날개를 펼친 자세를 취하게 된다(Fig. 8 참조).

동물의 색으로는 규정된 문장학의 색중에서 자연색에 가까운 것이 사용되고 있다¹⁴⁾. 포유동물의 이(齒), 발톱, 발굽, 조류의 주둥이와 갈구리 발톱은 항상 강조되고 방패의 표면과 대조적인 색이 사용된다.

1) 사자(獅子)

百獸의 왕으로 문장학 초기시대부터 왕과 여러 영웅의



Fig. 9. 마가의 사자
(須本由喜子：西洋紋章大圖鑑, p. 241)

문장에 사용된 사자는 상대에게 위협을 주고 신체를 보호하는 강력한 防禦力으로서 超自然的인 힘을 갖는 것이다. 주로 뉴프라테스강 유역에 위치한 앗시리아, 바빌로니아에서 사자는 재앙을 막는 魔力이 있다고 믿었다¹⁵⁾. 또 이집트에서는 왕권의 상징이 되어 파라오와 스�핑크스의 머리부분을 장식하여 왕의 권력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한편 그리스나 로마인 사이에서도 사자는 신과 여신의 상징이 됨과 동시에 지배하는 인간의 힘과 권력의 可視的인 증거가 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사자는 고대 오리엔트(orient)의 상징의 세계에서 군림하게 된다. 그러나 지중해의 고대 민족의 신화 속에서도 가장 의미있는 동물의 모습으로 등장할 하게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서구사회에서도 사자는 여러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의 사자>로 표현되며 聖徒 피에로니므스에 의해 사자는 지옥으로부터의 勝者의 상징이 되며 동시에 聖徒의 강력한 파수꾼과 守護者가 되기도 한다. 날개를 덧붙인 사자는 第二 福音書의 저자인 마가에게 부여된 상징이 된다(Fig. 9). 이 <마가의 사자>는 베네주엘라 공화국의 軍旗에 이용되고 있으며 현재에는 남유럽의 NATO의 군사적인 표시로서 나타나 있다¹⁶⁾.

2) 독수리(鷲)

용기와 힘, 용감과 신의 권력, 그리고 정의의 상징인 독수리는 신화나 전설상의 鳥類의 왕으로서 고대 오리엔트의 문화민족 사이에서 비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¹⁷⁾. 즉 바빌로니아와 페르샤에서는 독수리를 최고 신의 상징으로서 또 권력의 상징으로서 숭배하고 있었다. 바빌로니아에 이어서 페르샤와 이집트에서도 기원전 305년 이래 권력의 상징이 되어왔다. 고대 그리스의 독

수리는 제우스의 상징이고 고대 로마에서는 쥬피터의 상징이 되었다. 그리스도교의 세계에서도 독수리가 가지는 고귀한 성격은 그리스도와 직접 연결되어 騎士의 忠誠과 人生觀의 상징이 되었다.

신성 로마 제국의 칼(Karl) 大帝는 독수리를 고대 로마인이 지녔던 신의 상징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세속의 제왕으로 특히 帝國의 相續人을 위한 문장으로 이어받고 있다. 또 오토(otto) 왕조는 로마제국을 계속한다는 이념에 따라 독수리에 대해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였다. 이어서 콘라드 2세(Konrad II)는 王笏에 樣式화된 독수리를 묘사한 冠을 씌우고 있다. 그러나 元首의 방패의 圖形으로서 문장학적으로 樣式화된 독수리는 1140년에 처음으로 나타난다. 프리드리히 1세(Friedrich)의 치하에서 금색의 독수리는 황제의 표시이고 흑색 바탕에 금색 독수리는 황제 일족의 문장으로 표시되었다.

1195년 황제 하인리히 6세(Heinrich)의 細密畫에서는 방패, 투구, 馬衣에 금색의 독수리가 보여지게 된다(Fig. 10).

1278년 루돌프 1세(Rudolf)는 금색 방패 바탕에 적색 주둥이와 발을 가진 검은 독수리를 제국문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와같이 규정된 색은 舊帝國 말기까지 계속되고 이후 주둥이나 발은 적색으로부터 금색으로 변하게 된다. 15세기에는 독수리 머리 둘레에 光輪이 나타나며 또 세습자의 血族紋章을 독수리의 가슴에 나타낸 것이



Fig. 10. Heinrich 6세의 방패, 투구, 馬衣에 독수리 문장
(須本由喜子：西洋紋章大圖鑑, p. 185)



Fig. 11. Tahard 위에 혈족문장이 묘사된 독수리
(Arthur Charles Fox-Davies: Heraldry, p. 25)

많다(Fig. 11)¹⁸⁾. 王笏이나 십자가가 달린 地球儀, 劍 등은 王權者 문장의 부가적인 구성부분이고 宮廷紋章學 으로부터 생겨난 것이다.

1848년 혁명 후에 나타난 새로운 문장은 금색 방패에 금색 발톱과 붉은 혀를 가진 검은 雙頭의 독수리¹⁹⁾이다. 이것은 오스트리아의 雙頭의 독수리와 구별하기 위해 독재 군주의 상징인 冠, 王笏, 십자가가 붙은 地球儀, 光輪 등은 일체 사용하고 있지 않다.

1919년 독재가 종결된 후 와이마르 공화국의 새로운 독수리는 금색 바탕의 방패에 붉은 발과 주둥이를 가진 것이다. 이것과 같은 형이 1950년 독일 연방 공화국의 새로운 문장으로 적용되게 된다²⁰⁾.

3) 人間

문장에 인간의 圖形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은 방패, 투구장식(crest)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으로 전 계층의 남녀노소를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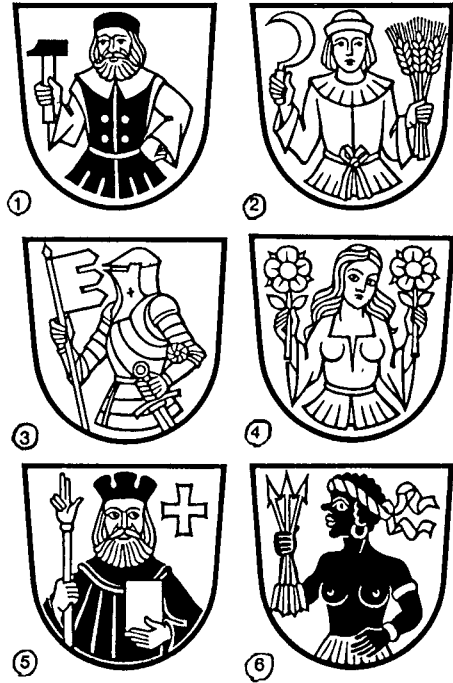


Fig. 12. 人間 圖形

(須本由喜子; 西洋紋章大圖鑑, p. 173)

① 광부 ② 농부 ③ 기사 ④ 처녀 ⑤ 재판관 ⑥ 여자 흑인

인간의 圖形은 모든 종족과 계급의 남성과 여성, 인간 신체의 각각의 부분을 묘사하고 있어 圖形 그 자체가 내용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다(Fig. 12).

문장학상의 樣式化는 다른 그림처럼 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저한 외적 특징, 특이성, 민족의 相違 등이 강조되고 있다. 피부색은 자연색으로 표현되나 흑인은 검게 나타나 있다(Fig. 12-⑥). 인간의 신체는 정면묘사가 일반적이며 원근법은 사용되지 않는다. 손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인간의 圖形은 손을 허리에 얹고 있는 것이 많으며 활동하고 있는 인간의 경우, 무기·도구·기구 등과 같은 손에 들고 있는 물체에 대한 명확한 표기가 되어있다²¹⁾.

특히 남성이든 여성이든 의복은 항상 그 시대 양식에 따르고 있으므로 문장에 묘사된 의복은 문장의 시대를 결정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²²⁾.

문장학상 신체 각 부분에 대한 묘사에서 머리의 통상적인 위치는 측면(profile)이며 정면으로 표현된 것은 「en face」 즉 얼굴이라 부른다²³⁾. 머리카락과 수염은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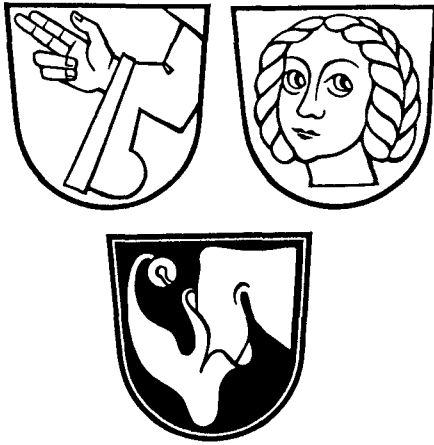


Fig. 13. 신체 각 부분
(須本由喜子; 西洋紋章大圖鑑, pp. 175~176)

별과 연령을 나타내며 모자는 지위와 계급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부분이 된다. 여성의 머리는 굽슬굽슬하게 또는 3가닥으로 땋기도 하여 각각의 시대의 髮型을 반영하고 있다.

한쪽팔만 나타내는 경우 팔꿈치를 직각으로 구부리고 손가락은 위쪽을 가르키고 있는 것이 많다. 그리고 이 팔이 벗고있는 의복을 입고있든 또는 무장을 하고있든 항상 팔과 손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24,25)}.

다리의 경우 무릎을 직각으로 구부리고 있으며 팔과 마찬가지로 벗고 있거나 의복을 걸치기도 한다²⁶⁾. 발은 맨발이거나 그 시대의 구두나 장화를 신고있어 역시 그 시대의 신발형을 문장을 통해 알 수 있다(Fig. 13).

심장형(heart)은 성실과 참된 용기를 상징하는 比喻的인 도형으로서 성직자나 농민 시민문장으로 널리 적용되고 있다²⁷⁾. 이 심장형에 다른 도형을 첨가시키는 것에 의해 그 象徴性을 높이고 그 의미를 명확히 나타내게 된다.

頭蓋骨은 주로 印章과 紋章의 모티브에서 투구가 놓이는 위치에 두는 경우도 있다. 때로는 頭蓋骨에 大腿骨을 붙이고 있는 경우도 있어 인생의 無相을 상징하고 있다²⁸⁾.

천사는 파도치는 머리카락이 있는 처녀로 묘사되며 주름이 많은 긴 의복을 걸치고 있다. 천사의 머리는 언제나 정면을 향하고 있으며 머리둘레에 첨가된 날개는 그 수와 위치에 따라 지위를 나타내고 있다²⁹⁾.

4) 傳說上的 創造物

여러가지 동물의 몸으로 이루어진 괴수, 신화나 전설상의 동물, 想像의 창조물은 중세의 고지식함과 무지로부터 문장도형으로 창안되어 계몽시대까지는 실존하는 것이라 생각하였다³⁰⁾. 二重被造物은 순수한 문장학의 圖形으로 문장의 결합과 방패 구획선의 두 가지의 요소를 합쳐 만든 것이다³¹⁾. 기괴한 전설상의 창조물이 특히 많은 것은 독일의 문장학이다³²⁾. <雙頭的 독수리>는 가장 일반적이고 또한 가장 중요한 二重被造物이라고 할 수 있다.

· 하피(harpy); 문장학의 독수리에서 생겨난 二重被造物로서는 <처녀 독수리>가 있는데 그것은 冠을 쓴 처녀의 上半身을 갖는 독수리로서 <harpie> 또는 <harpy>라고 이름 지어지고 있다³³⁾.

· 人魚(marmaid); 인어는 머리, 몸, 팔은 여자의 모습을 하고 꼬리는 물고기 모습을 한 전설상의 創造物로 이미 12세기에 문장으로서 이용되고 있다. 인어는 보통 오른손에 거울을, 왼손에 빗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³⁴⁾. 후기의 인어는 두개로 나누어진 꼬리를 손으로 치켜들고 있다(Fig. 14). 인어에 비해서 훨씬 드문 것은 merman으로 보통 갈대冠을 쓰고 갈대帶를 띠고 있다³⁵⁾.

· 그리핀(griffin); 그리핀은 바빌로니아와 아시리아의 신화에서 생겨난 것이다. 독수리의 머리와 가슴, 예리한 발톱과 날개에, 사자의 가는 下半身과 꼬리를 갖는 모양을 한다. 이와같이 그리핀은 새 중 왕인 독수리와 동물의 왕인 사자가 조합되어 묘사된 강력한 괴물이다³⁶⁾ (Fig.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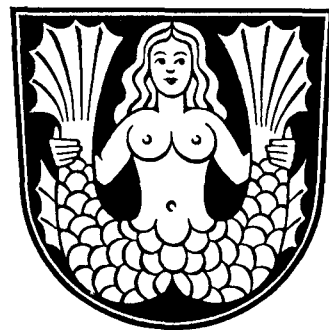


Fig. 14. 인어
(須本由喜子; 西洋紋章大圖鑑, p. 240)



Fig. 15. griffin
(須本由喜子; 西洋紋章大圖鑑, p. 240)



Fig. 17. Wyvern
(Hubert Allcock; Heraldic Design, p. 19)



Fig. 16. dragon
(Hubert Allcock; Heraldic Design, p. 18)



Fig. 18. Unicorn
(Hubert Allcock; Heraldic Design, p. 19)

사자 독수리의 전체상은 그리핀을 닮고 있으나 날개가 있다.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는 방패의 그림으로서는 드문 것인데 투구장식으로서는 인기가 있던 것이다.

<마가의 사자>는 福音書 작가인 마가의 상징이다³⁷⁾. 그것은 光輪과 날개를 달고 正面을 향해 서 있는 사자의 모습이다(Fig. 9).

· 龍(dragon) : 龍은 네발짐승으로 몸은 갑옷처럼 비늘로 덮혀있고, 크고 뾰족한 머리, 부풀어 오른 콧구멍과 강한 이, 그리고 박쥐의 날개와 화살끝 같은 꼬리를 갖는 괴물이다^{38,39)}(Fig. 16). 그 變形에는 앞발에 독수리의 발을, 뒷다리에 사자의 다리를 가진 것도 있다. 그것에 대해서 wyvern은 입에서 불을 토해내며 두개의 다리와 물갈퀴 모양의 날개, 목덜미와 등에 우글우글한 지느러미 모양의 것을 가지고 있다(Fig. 17). 공포를 불러 일으키는 바질리스크(basilisk; 사람을 노리거나 입김을 쏘임으로써 죽였다는 전설상의 괴물)는 용의 몸에 긴 발톱이 있는 발과 머리는 숫닭의 모습인데 전설에 의하

면 수탉이 난 계란에서 생긴 것이라 한다⁴⁰⁾.

· 一角獸(unicorn) : 一角獸는 긴 나선상의 뿔을 이마의 한복판에 갖는 말을 닮은 신화 세계의 동물이다. 이 一角獸는 이미 초기에 그리스도교의 상징의 세계로 침투하고, 마리아의 순결과 처녀성을 상징하고 있다. 또 왕의 재판권의 상징으로서 특히 영국 문장에 많이 사용되고, 색은 무죄의 색이라고 하는 은색을, 갈기, 꼬리, 발굽에는 특히 금색을 이용한다⁴¹⁾(Fig. 18).

2. 植物紋樣

대단히 풍부하고 다양한 종류와 형의 寶庫로서의 식물 은 문장학에서 빈번히 그리고 아름다운 圖形으로 사용된다. 그 중에서도 장미와 백합은 문장학의 규범적인 造形이 행해지고 있다. 식물을 樣式化하기 위하여는 그 식물이 무엇인지 분명히 식별 가능한 것이 前提條件이 된다. 본질적으로는 식물은 자연의 형에 따르고 있으며 잎, 꽃, 열매 등으로 그 식물이 가지는 특징은 강조된다. 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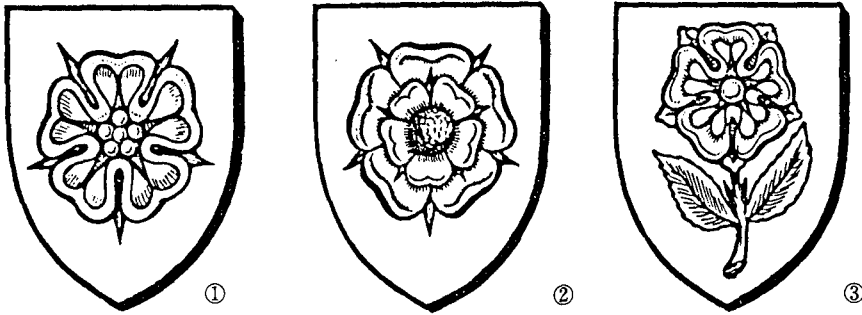


Fig. 19. 장미 문장(Hubert Allcock; Heraldic Design, p. 21)
 ① 씨와 가시가 있는 장미 ② Tudor 장미 ③ 줄기와 잎이 있는 장미

은 문장학의 색 중에서 자연의 색에 가장 가까운 색이 선택된다⁴²⁾.

1) 장미

꽃의 왕인 장미는 옛날부터 생의 기쁨과 행복의 상징, 또 그 적색때문에 사랑의 상징으로서 전 게르만 민족이 즐겨 사용한 방패의 그림이다(Fig. 19). 또馬上試合의 勝者에게는 최고의 영예를 칭송하는 붉은 장미의 花環이 보내어졌다. 그 후 꽃잎이 많은 장미는 그 형 때문에 침묵과 비밀의 상징이 된다. 그러나 문장학에서의 장미 원형은 꽃잎이 많은 장미는 보이지 않으며 명문귀족의 문장에 보여지는 것처럼 5잎의 들장미이다. 그것의 꽃잎은 크며, 꽃술의 둘레에 균등한 간격으로 배열되어 있고, 그 사이에는 뾰족한 가시를 달고있다. 초기 문장학의 꽃잎형은 둥근형(丸形), 혹은 약간 하트형에 가까운 형으로 되어있다. 사용되는 색은 물론 적색이지만, 금색 또는 은색의 장미도 이따금 보여진다. 또 꽃술과 가시는 언제나 방패의 색과 대조적인 색이 사용된다⁴³⁾.

장미는 15세기 영국에서 있었던 장미전쟁(1455~1485)에서도 나타나게 된다. 즉 그 당시 일어난 왕위 쟁탈전에서 요오크家(York)는 흰장미, 랭카스터家(Lancaster)는 붉은장미를 徽章으로 한데서 '장미전쟁'이라 일컬어지게 되었다. 이 전쟁은 랭카스터家的 헨리 7세가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다음해 요오크家的 엘리자베드와 결혼하여 튜더왕조(Tudor)를 창립하게 되었다. 따라서 튜더家的 장미는 밖에 5잎의 붉은 장미와 안에 5잎의 흰장미를 결합시킨 형태(Fig. 19-②)이며 영국 왕실의 badge는 이와 같은 모습에 줄기와 잎을 붙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⁴⁴⁾(Fig. 19-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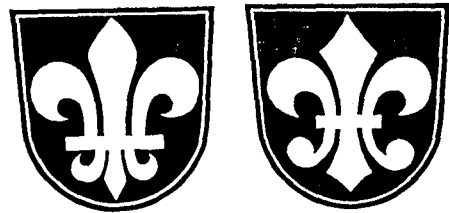


Fig. 20. 프랑스 백합 문장
 (須本由喜子; 西洋紋章大圖鑑, p. 256)

2) 백합

백합은 순결과 처녀성의 상징인 동시에 왕의 신분의 標章이기도 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王笏, 冠, 동전 등에 백합도형이 많이 보인다.

프랑스의 백합 혹은 백합이라고도 칭하는 문장학의 백합의 기본형은 꽃잎을 넓힌 水仙과 비슷하다. 이 독특하게 樣式化된 꽃 장식의 기원은 고대 동양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줄기와 잎을 갖지 않은 백합이 이미 가리아의 동전에 나타나 있다. 1179년 이후 3가지(枝)의 金百合은 백합의 문장(fleur-de-lis)으로서 브르봉家的 戰旗를 장식하고 있다. 그 이후 3가지의 백합은 프랑스의 紋章이 되었다⁴⁵⁾(Fig. 20).

프로렌스시의 문장 백합은 가운데 꽃잎 사이에 두개의 장식잎을 붙이고 있다. 줄기와 잎을 붙인 자연의 백합은 초기의 문장학에는 없고 聖徒 및 修道院 문장의 모티브로서 생긴 것이다. 방패의 바탕이나 장식덮개(mantle), 투구장식(crest)의 장식으로서 사용되어지는 작은 백합은 프랑스 왕조의 초기 문장에서 신분을 구별하기 위해 標章으로 사용되고, 또 프랑스의 자치체 문장학에서는 오늘날에서도 아직 특별한 標章으로서의 의미를 가

지고 있다. 백합에 사용하는 문장학의 색은 주로 금색과 은색이다⁴⁶⁾.

3. 象徵性

문장에 사용된 圖形的 象徵性을 抽出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動物紋樣

<짐승 (animal) >

- 개 (dog) ; 慎重, 경계, 충성
- 곰 (bear) ; 聖스러운 동물, 독일 문장에 빈번히 나타남⁴⁷⁾.
- 당나귀 (ass) ; 忍耐, 참을성
- 독사뱀 (serpent) ; 민감, 智慧
- 독수리 (eagle) ; 용기와 힘, 신의 권력, 정의의 상징, 황제의 권위, 재판관
- 말 (horse) ; 용맹성, 대담성, 용기, 신속, 민첩, 영국 saxon왕의 문장⁴⁸⁾
- 벌 (bee) ; 근면, 질서, 희생
- 사자 (lion) ; 신분을 보호하는 강력한 방어력으로서 초자연적인 힘, 왕권의 상징, 여신, 고귀, 용기, 아랑
- 사슴 (deer) ; 우아함, 고상함, 무상(無常)의 상징, 영국 문장에 많이 사용⁴⁹⁾
- 산돼지 (boar) ; 不屈의 용기와 대담성, 위협과 공포, 북유럽·독일·스코틀랜드 문장에 자주 보임⁵⁰⁾.
- 어린양 (lamb) ; 그리스도의 수난
- 염소 (goat) ; 야성적인 힘
- 코끼리 (elephant) ; 충명, 힘
- 펠리컨 (pelican) ; 애국심, 부성애, 희생과 박애⁵¹⁾

<괴물 (monster) >

- 유니콘 (unicorn) ; 마리아의 순결, 처녀성, 왕의 재판권, 영국·스코틀랜드 문장에 자주 나타남^{52,53)}.
- 페가수스 (pegasus) ; 신비
- 피닉스 (phoenix) ; 불사신

2) 植物紋樣

<꽃 (flower) >

- 백합 (lily, fleur-de-lis) ; 순결, 처녀성, 왕의 신분⁵⁴⁾
 - 장미 (rose) ; 生の 기쁨, 행복, 사랑, 침묵, 비밀 (꽃잎이 많은 장미)
 - 보리수 (linden) ; 게르만 민족의 숭배와 司法의 상징
- <나무 (plant) >
- 월계수 (laurel) ; 승리, 영예, 명성

- 종려나무 (palm) ; 평화, 승리
- 참나무 (oak) ; 굳게 참아 실행에 옮기지 않음 (堅忍不拔), 남자다움, 실행력, 싸움의 승리⁵⁵⁾

3) 宇宙

- 별 (mullet) ; 시대에 상관없이 명예로움⁵⁶⁾
- 초생달 (crescent) ; 고귀함
- 태양 (sun) ; 공정함, 고귀함

4) 人工圖

- 수레바퀴살 (spoke) ; 회전하는 힘은 성스러운 힘의 상징으로 수레바퀴살이 6개—수호와 방어, 수레바퀴살이 8~12개—운명의 신^{57,58)}
- 십자가 (cross) ; 승리, 그리스도의 수난, 그리스도교의 신념, 그리스도의 生活觀⁵⁹⁾

V. 結 論

戰場에서 同族표시를 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紋章은 그 후 馬上試合에서 자신의 家門과 家族을 구별하는데 사용되었다.

紋章은 시대의 예술 양식의 영향을 받아 로마네스크 시대의 사자와 독수리 圖形은 간결하고 단순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고딕시대에는 간결하나 힘찬 형태로, 르네상스 시대에는 정교하며 우아한 형태로 변화되었다.

紋章에 나타난 圖形的 상징성은 주권자의 힘, 권력을 사자나 독수리와 같은 猛獸類로서 그들의 위용을 나타내려 하였다.

또 전설이나 신화상의 동물도 紋章의 圖形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紋章의 소유자에게 超人的인 능력을 부여시켜 神聖視 여겼거나 또는 공포를 자아내게 하는 모습으로 상대방에게 위협, 위압감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思料된다.

家畜, 家禽類도 紋章에 쓰였는데 이들의 상징성은 주로 용맹성, 용기, 희생, 충성 등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주권자에 대한 신화의 충성심을 나타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나 그리스도교와 관계가 있는 紋章圖形은 어린양, 십자가 등으로 이는 중세를 지배했던 근본사상인 그리스도교에 대한 膜원을 紋章化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紋章圖形은 방대하므로 연구 내용이 미비하고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된다. 이점은 앞으로 수

정 보완할 기회를 갖기로 하겠다.

引 用 文 獻

- 1) 동아 원색 대백과 사전 12권, 동아출판사, 402, (1983).
- 2) 青木英夫: '西洋中世における紋章', 戸板女, 研究集報 6, 105~102, (1963, 11.).
- 3) 拙稿: '유럽 紋章에 관한 研究', 安東大學論文集 第11輯, 367, (1989).
- 4) Ibid; 367~387.
- 5) 丹澤功: '中世紀 西洋衣服に 現れた 紋章について', 家政學雜誌 7卷 3號, 85, (1956).
- 6) Colonel A.G. Puttock; A Dictionary of Heraldry and Related Subjects, N.Y.: ARCO Publishing, Inc., 19~20, 71, (1985).
- 7) 동아 원색 대백과 사전, op. cit., 402, (1983).
- 8) Ibid.,
- 9) 森護: 西洋の 紋章 とデザイン, 東京: ダヴィッド社, 41, (1982).
- 10) 拙稿: op. cit., 385.
- 11) 須本由喜子譯: 西洋紋章大圖鑑, 東京: 美術出版社, 208~220, (1979).
- 12) Ibid., 182~204.
- 13) 紋章學上 動物은 항상 dexter로 향하게 묘사되고 있다. 그 이유는 sinister(左向)은 敵으로부터 도망친다는 비겁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런 규칙은 영국, 프랑스 紋章에서는 엄격히 지켜지나 독일 紋章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 14) 拙稿: op. cit., 377~379.
- 15) William Newton; A Display of Heraldry, London: William Picker 80~86, (1846).
- 16) 須本由喜子: op. cit., 205~206.
- 17) William Newton; op. cit., 108.
- 18) Arther Charles Fox-Davies; The Art of Heraldry, London: Bloomsbury Books, 25, (1986).
- 19) 雙頭の 독수리는 B.C. 1000년 경부터 히타이트, 아시리아, 이집트, 비잔틴 제국에서 이용되었다. 유럽에서는 십자군시대 그리스도교 騎士에 의해 계승되었다고 史料된다. 1434년 시지스문트 1세가 즉위할 때 光輪을 붙인 雙頭の 독수리를 처음으로 皇帝의 紋章으로 적용하였다. 그 후 1806년 신성 로마제국이 해체될 때까지 이 光輪을 붙인 雙頭の 독수리를 계속 사용하였다.
- 20) 須本由喜子: op. cit., 185~189.
- 21) Ibid., 172.
- 22) Brooke-Little, J.P.; Boutell's Heraldry, 61~63, London and New York: Frederick Warne & Co. LTD. 61, (1970).
- 23) 須本由喜子: op. cit., 175.
- 24) Ibid., 177.
- 25) Brooke-Little, J.P.; op. cit., 135.
- 26) Ibid., 135~136.
- 27) William Newton; op. cit., 133.
- 28) Ibid., 136.
- 29) 須本由喜子: op. cit., 179.
- 30) William Newton; op. cit., 124.
- 31) 須本由喜子: 239.
- 32) William Newton; op. cit., 124.
- 33) Stefan Oliver; An Introduction to Heraldry, London: Apple Press Ltd., 53, (1987)
- 34) Colonel A.G. Puttock; op. cit., 87.
- 35) 須本由喜子: op. cit., 240.
- 36) Stefan Oliver; op. cit., 53.
- 37) 須本由喜子: op. cit., 241.
- 38) Stefan Oliver; op. cit., 50.
- 39) Allcock Hubert; Heraldic Design, New York: Tudor Publishing Co., 18, (1962).
- 40) Ibid., 53.
- 41) William Newton; op. cit., 127~128.
- 42) 須本由喜子: op. cit., 245.
- 43) Ibid., 254~255.
- 44) Roger Milton; Heralds and History, London: Davis & Charles, 55, (1978).
- 45) Ibid., 54.
- 46) 須本由喜子: op. cit., 256~257.
- 47) William Newton; op. cit., 90.
- 48) Ibid., 95~96.
- 49) Ibid., 97.
- 50) Ibid., 92.
- 51) Ibid., 114.
- 52) Ibid., 127.
- 53) Stefan Oliver; op. cit., 50.
- 54) Roger Milton; op. cit., 54.
- 55) William Newton; op. cit., 138~139.
- 56) Hubert Allcock; op. cit., 23.
- 57) 高橋正人; シンボル・デザイン, 東京: ダヴィッド 60, (1981).
- 58) 須本由喜子: op. cit., 266.
- 59) Ibid., 285.